

미 증시, 고용지표 부진, ISM 서비스업지수 대기심리에 혼조세

SUMMARY

1. 고용지표 부진에도,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둔화에 무게를 실어주며 9월 FOMC 50bp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
2. 8월 초 분위기 반전의 계기였던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대기
3. 금일에는 낙폭과대 인식 속 전일 갭하락을 메우며 2,600 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미국 증시 리뷰

4 일(수) 미국 증시는 전일 낙폭 과대 인식으로 반등 시도했으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지속, ISM 서비스업지수 대기심리,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보도로 인한 추가 하락 등이 상단을 제한, 경기방어 섹터만이 강세보이며 혼조세 마감. (다우 +0.09%, S&P500 -0.16%, 나스닥 -0.3%, 러셀 2000 -0.19%)

7 월 JOLTS 구인건수는 767.3 만건(예상 809 만건, 전월 791 만건)으로 예상치 큰폭으로 하회, 퇴직 건수는 전월 508.4 만건 → 542 만건으로 증가, 전체 고용 중 퇴직 비율 3.2% → 3.4%로 상승. 자발적 퇴직(이직)은 327.7 만건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고 비자발적 퇴직(해고)은 156 만건 → 176.2 만건으로 증가. 7 월 제조업 주문은 MOM 5.0%(예상 4.9%, 전월 -3.3%)로 (+) 전환. 운송, 항공기 부문 증가에 기인했으나 운송제외 제조업주문 역시 전월 0.1% → 0.4%로 증가.

8 월 베이지북에서 지난 7 월 12 개 관할 지역 중 3 곳에서만 경제활동은 "살짝(slightly) 성장"했고,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 "고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안정적(steady)이었으나, 기업들이 필요한 직책만 채우고, 근무 시간과 교대 근무를 줄이거나, 자연 감소를 통해 전체 고용 수준을 낮추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 "그럼에도 해고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드물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완만했으며(modest), 비노동 투입비용과 판매가격의 상승은 살짝에서 적당한(slight to moderate) 수준에서 분포했다"고 평가.

매파 성향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으나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 노동시장 약화 조짐이 늘면서 연준 책무의 중심축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고용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하며 "인플레이션이 실제 2%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미룰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냉각을 경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었음에도,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보다는 점진적인 둔화에 무게를 실어주며 9 월 FOMC 50bp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였다고 판단. 1)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항목은 의료 서비스 (-18.7 만건) 다음으로 주·지방 정부(-10.1 만건)였으며 정부 고용 감소가 크게 기여했음. 반면 전문직 서비스 (17.8 만건)은 큰폭 증가. 2) 구인건수는 감소, 해고는 증가했으나 전체 고용대비 해고율은 2.1%로 전월 2.0% 대비 소폭 상승하여 지난 10 년 평균 수준 유지. 3)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인 구인율(구인건수/실업자수)은 6 월 1.16 배 → 7 월 1.07 배로 하락. 노동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판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됐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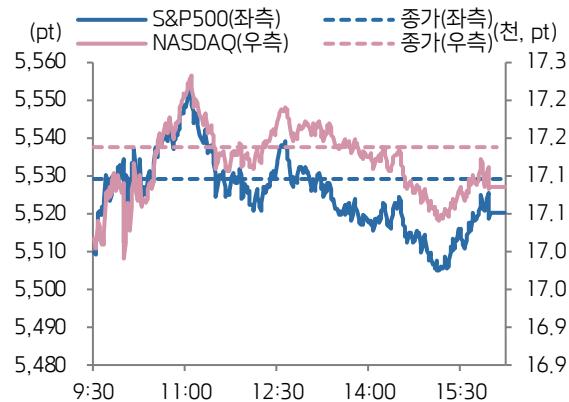
베이지북에서도 향후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으나 지난달 전반적으로 고용 수준은 안정적, 물가는 완만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 경기 연착륙을 전망하는 연준 위원의 발언,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된 제조업 주문 등 감안 시 25bp 인하 및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 유효. 최근 프로그램 매매, 옵션거래 등이 증시 일일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8 월 초 분위기 반전의 계기였던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대기. 후행지표이지만 7 월 구인건수에서 서비스직종 구인이 증가했다는 점 감안시 고용지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 낮다고 판단.

4 일(화) 국내증시는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 하회 경기침체 우려 재확산, 엔비디아 급락 여파 등에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세 확대되며 3%대 급락 마감 (KOSPI -3.15%, KOSDAQ -3.76%).

금일에는 낙폭과대 인식 속 전일 갭하락을 메우며 2,600 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대내적으로는 금투세 이슈,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 고평가 해소 구간인 동시에 경기 침체 및 연준 정책 경로 불확실성 등 외생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구간으로, 거래대금 부진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는 소수종목 쓸림 장세 지속되며 개별 종목 중심 대응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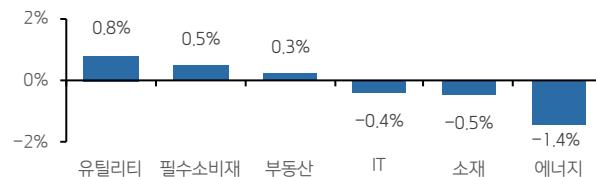
8 월 이후 수익률을 업데이트해보면 수익률 상위 업종은 IT 가전(7.8%), 유太高(6.9%), 증권(6.0%), 비철목재(5.4%), 보험(2.9%)로 유太高(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테마), 증권보험(밸류업 기대감) 제외 사실상 이차전지 섹터. 수급 빈집인 호텔레저(2.8%) 역시 선방한 가운데, 건강관리(2.5%)는 상승폭 일부 반납. 상반기 주도주였던 건설(-5.4%), 화장품(-6.3%), 기계(-6.5%), 조선(-9.9%) 모두 약세 전환, 반도체(-13.7%)는 SK 하이닉스 -20%, 삼성전자 -16% 하락하며 약세 주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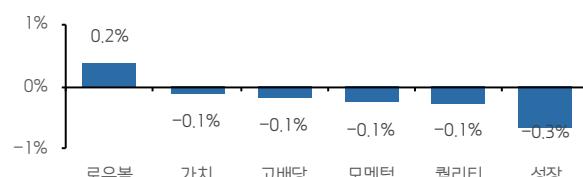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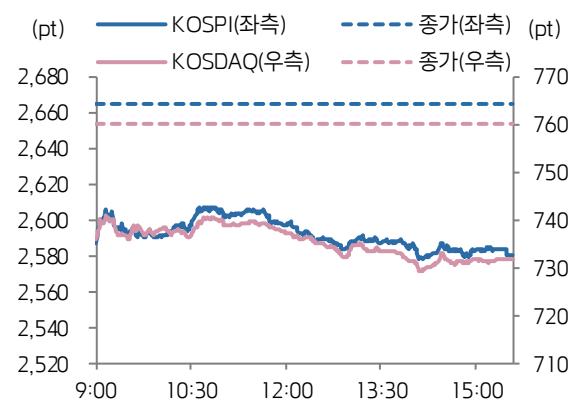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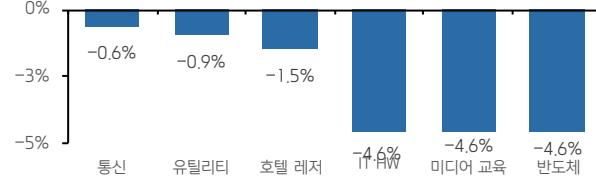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0.85	-0.86%	+15.14%	GM	48.45	+0.08%	+35.64%
마이크로소프트	408.90	-0.13%	+9.33%	릴라이릴리	946.31	-1.07%	+63.13%
알파벳	156.45	-0.58%	+12.13%	월마트	77.24	+0.09%	+48.41%
메타	512.74	+0.19%	+45.16%	JP 모건	219.33	-0.44%	+31.22%
아마존	173.33	-1.66%	+14.08%	엑손모빌	114.06	-1.22%	+17.01%
테슬라	219.41	+4.18%	-11.7%	셰브론	142.07	-1.79%	-1.65%
엔비디아	106.21	-1.66%	+114.5%	제너럴일렉트릭	77.24	+0.1%	+48.4%
브로드컴	154.12	+0.87%	+39.1%	캐터필러	336.75	-1.03%	+15.31%
AMD	140.87	+2.87%	-4.44%	보잉	163.22	+1.37%	-37.38%
마이크론	89.29	+0.8%	+4.82%	넥스트에라	81.08	+1.4%	+36.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80.80	-3.15%	-2.8%	USD/KRW	1,336.00	-0.7%	+3.73%
코스피 200	346.66	-3.38%	-3.16%	달러 지수	101.36	-0.46%	+0.02%
코스닥	731.75	-3.76%	-15.56%	EUR/USD	1.11	+0.35%	+0.39%
코스닥 150	1,226.47	-4.26%	-11.98%	USD/CNH	7.11	-0.1%	-0.17%
S&P500	5,520.07	-0.16%	+15.73%	USD/JPY	143.74	-1.2%	+1.91%
NASDAQ	17,084.30	-0.3%	+13.81%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0,974.97	+0.09%	+8.72%	국고채 3년	2,927	-5.3bp	-21.8bp
VIX	21.32	+2.9%	+71.24%	국고채 10년	3,047	-7.3bp	-12.8bp
러셀 2000	2,145.22	-0.19%	+5.83%	미국 국채 2년	3,754	-10.9bp	-49.6bp
필라. 반도체	4,770.85	+0.25%	+14.26%	미국 국채 10년	3,755	-7.6bp	-12.4bp
다우 운송	15,921.35	+0.39%	+0.14%	미국 국채 30년	4,058	-6.5bp	+3bp
상해종합	2,784.28	-0.67%	-6.41%	독일 국채 10년	2,224	-5.3bp	+20bp
항셍 H	6,133.98	-1.12%	+6.3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2,352.64	-0.25%	+14%	WTI	69.20	-1.62%	-2.51%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2.70	-1.42%	-5.63%
Eurostoxx50	4,848.18	-1.31%	+7.23%	금	2,526.00	+0.12%	+16.94%
MSCI 전세계 지수	815.05	-0.54%	+12.11%	은	28.56	+0.75%	+18.56%
MSCI DM 지수	3,580.06	-0.43%	+12.96%	구리	407.90	-0.32%	+4.85%
MSCI EM 지수	1,073.59	-1.52%	+4.87%	BDI	1,947.00	+1.46%	-7.02%
MSCI 한국 ETF	63.26	+0.03%	-3.46%	옥수수	412.75	+0.86%	-18.0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0.75	+2.47%	-13.19%
비트코인	58,043.68	-0.29%	+36.55%	대두	1,021.50	+0.94%	-18%
이더리움	2,455.07	-0.31%	+7.57%	커피	243.70	+0.37%	+29.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